

## 국 외 소 식



### **美 의학저널 'JAMA' 의사 윤리준칙 제시**

제약회사들은 의사와 병원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지원을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이 소비자 약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사는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약을 처방하기보다는 지원을 제공한 제약사가 생산하는 약을 처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심할 때는 제약사가 의사 또는 병원에 대해 자사 약을 처방하는데 대해 직접 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기도 한다. 하지만 리베이트는 불법이기에 제약사 지원은 항상 교묘하게 이뤄지며 합법적 형태를 띤다. 제약사와 병원(또는 의사)간 유착 문제는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사회문제화한 지 오래다.

NEJM과 함께 세계 2대 의학저널로 꼽히는 JAMA(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 미국 의사협회지)는 최근 '건강산업 관행이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논문을 통해 제약사와 병원간 유착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이해상충은 환자 이익과 제약회사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을 뜻한다. 제약사가 관행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을 받는 병원의 의사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제약회사가 원하는 약을 처방할 때 이해상충 문제가 생긴다.

논문 공저자인 데이비드 로스먼 컬럼비아대 교수는 "대학병원과 제약사간 관계는 심각한 위협으로 의사에 대한 (환자)신뢰를 손상시키고 있다"며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논문에서 "환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사의 책임과 의무를 손상시키는 마케팅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더 엄격한 준칙을 마련해 지킬 것을 권고했다.

다음은 저자들이 제시한 윤리준칙 주요 내용이다.

- ◆ 제약사측에서 식사대접은 물론 어떤 선물도 받지 못하게 할 것(연구결과에 따르면 펜과 같은 비싸지 않은 선물조차도 의사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 ◆ 의사가 제약사측에서 의약품 샘플을 받지 못하게 할 것(샘플을 쓰다 보면 효과는 좋지 않으면서 값만 비싼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 ◆ 제약사측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의사는 처방약 목록을 정하는 패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대형병원은 처방가능한 약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둔다. 따라서 소속 의사는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약을 처방할 수 없다. 제약사측에서 지원을 받는 의사가 패널에 참석하면 해당 제약사 약을 처방약 목록에 넣고 경쟁사 약을 빼버릴 가능성이 있다).
- ◆ 제약사가 의과대학 교육비를 직접 결제하지 못하도록 할 것.
- ◆ 교수진이 제약사 대변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할 것.

- ◆ 제약사 직원이 교수 논문을 대필하지 못하게 할 것.
- ◆ 제약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교수는 일반인들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계약 내용을 공표할 것.

미국 신문 USA투데이에 따르면 로스먼 교수 등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일부 의과대학들은 제약사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 논문 공저자인 제로미 카시레 전 NEJM 편집자는 설명한다.

카시레 전 편집자는 “거액 자금과 식사대접이 제약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예일대 의대는 JAMA에 발표된 윤리지침과 매우 비슷한 윤리지침을 발표 해 눈길을 끌었다고 USA투데이는 보도했다.

데이비드 콜먼 예일대 교수는 “우리는 가장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예일대에 이어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의대도 오는 7월 1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랄프 호위츠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의대 학장은 “의과대학은 미국 의학의 양심 이어야 한다(Medical schools need to be the conscience of American medicine)”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제약사들이 쓰는 마케팅 비용 210억달러(21조원) 가운데 90%는 의사가 타깃이라고 JAMA에 논문을 실은 저자들은 말한다. 따라서 미국과 달리 전문 의약품 광고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한국에서는 마케팅비용 중 거의 100%가 의사를 상대로 집행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환자의 약 선택권이 마케팅 비용 크기에 좌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 / 2006년 2월 1일

### 파킨슨병 유전적 연관성 발견

지금까지 다른 병에 비해 유전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던 파킨슨병 연구에서 유전적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내용이 발견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1월 26일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이날 발표된 두 개의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랍인과 북아프리카인, 유대인 가운데 20% 이상의 사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한 개의 유전적 돌연변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돌연변이는 중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 뿌리를 둔 민족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이 아닌 다른 그룹의 파킨슨병 환자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유전적 돌연변이에 의해 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추정을 낳고 있다.

또 이번 발견은 파킨슨병이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이 발병하고, 몸떨림, 신체 경직과 정신적 퇴화 등을 일으키는 지 근본적 의문들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널에 실린 논문들은 주장했다.

이번 연구 책임자인 신경학자 수전 브레스맨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것보다 파킨슨병 연구

에서 유전학이 훨씬 많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파킨슨병은 약을 복용해도 병의 악화를 막을 뿐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미국에만도 환자수가 50만명에 이르고 있다.

또 지금까지 연구는 대부분의 파킨슨병이, 어느 것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살충제 등 환경적 요인들이 합쳐지고, 환자간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작은 돌연변이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연합뉴스 / 2006년 1월 26일

### **美일간지, ‘뱀탕’ 보도에 사과**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한국인들이 장수를 위해 ‘뱀탕’을 먹는다고 보도한 데 대해 주미 한국 대사관에 사과의 뜻을 표명해왔다고 대사관이 1월 27일 밝혔다.

윤석중 홍보공사는 “본국 외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 신문에 공문을 보내, 문제의 기사가 마치 한국에서 뱀탕이 보편적인 음식인 것처럼 미국 독자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음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측은 이 같은 우려를 인정하고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적절한 시기에 칼럼을 통해 해명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지난 1월 18일 수프 상식에 대한 퀴즈 형식의 기사에서 “한국에 있는 끈적끈적한 수프로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장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고 묻고 그 해답으로 ‘뱀탕’이라고 보도했었다.

윤 공사는 “미국 언론의 보도중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한국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뱀탕’ 보도의 경우 유력지의 특히 청소년란에 실렸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공사는 공문에서 뱀탕이 한국의 보편화된 음식이 아니며, 밀렵된 야생동물의 식용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야생동물보호법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측은 “한국 모 일간지의 인터넷판 영문 기사에 한국인들이 건강을 위해 자라탕, 뱀탕, 사슴피 등을 먹는 다는 기사가 실린 것을 보고 기사를 작성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주의하겠으며 한국의 관련 법령 등을 적절한 기회에 소개하겠다”고 밝혔다는 것.

연합뉴스 / 2006년 1월 28일

### **英 템스강에 100년만에 고래 출현 소동**

영국 북해에서 길을 잃어버린 고래 한 마리가 템스강의 물살을 거슬러 런던 국회의사당이 있는 시내까지 올라왔다.

런던 전체가 “템스강에 청백돌고래가 나타나기는 1913년 이후 처음”이라며 흥분하고 있는 가운데 ‘고래 살리기’ 방법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과 미국의 MSNBC 인터넷판이 1월 20일 전했다.

보통 북해의 심해에서 떼지어다니는 청백 돌고래종으로 길이 4.5m, 중량 2t으로 추정되는 이 고래는 1



월 20일 오후 2시 이전(현지시간) 런던 남서부 배터시 구간의 템스강에서 한 차례 목격됐다.

구조대원들이 강물로 뛰어들어 고래를 바다로 되돌리려 시도했으나, 고래는 계속 강을 역으로 헤엄쳐 오후 5시께 국회의사당 부근까지 도달, 몇시간을 수면 아래에서 머물렀다.

수백명의 런던 시민이 고래를 구경하러 템스강가로 몰려나간 가운데 TV화면은 거의 하루 종일 ‘고래 현장’을 중계했고, 방송국마다 “고래를 도울 방법이 없겠

느냐”는 시청자들의 문의전화기가 잇따랐다.

6년 전 템스강에 밍크 고래가 나타난 적이 있고, 돌고래의 출현은 전에도 있었지만 청백 돌고래가 찾아든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구명보트를 타고 현장에 나간 수의사 리즈 샌드만은 “고래는 건강하고 편안해 보였다. 호흡도 정상이고, 체중도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이 고래의 코에 피가 흐르는 등 몸통에 상처들이 있는 점을 들어 아프거나, 다쳤거나, 늙어 고래가 무리에서 떨어져나와 방향을 잃은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다른 쪽에서는 안락사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구조대원들은 고래의 경로를 따라 이동받침대 등을 갖춘 배들을 움직이면서 고래가 물으로 올라올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청백 돌고래는 주로 대서양에서 서식하며 최대 몸길이 30피트(약9m), 중량 8t까지 나가는 대형 고래로, ‘템스강 탐험’에 나선 고래는 새끼 고래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2006년 1월 21일

### 美 ‘주인 살린 애완견’ 화제

산책중 주인 쓰러지자 손전등 흔들며 구조 요청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당뇨를 앓고 있는 한 남성이 애완견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인디애나 주 센터톤에 거주하는 빌 번스라는 남성은 1월 12일 밤 9시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개들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 도중 상태가 악화돼 근처 옥수수밭에 쓰러졌다. 번스는 밤 늦은 시간에 인적 없는 옥수수밭에서 자칫 그대로 목숨을 잃을 뻔 했으나 놀랍게도 함께 산책에 나섰던 개가 손전등을 입에 물고 흔들며 신호를 보내 목숨을 건졌다고 ABC 뉴스가 1월 19일 보도했다.

스티브 호프먼 보안관 대리가 센터톤 초등학교 앞에서 과속차량 단속을 하다 도로 근처의 옥수수밭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던 것. 호프먼이 다가갔을 때까지 검정개 부치가 번스 옆에서 손전등을 입에 문 채 흔들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또다른 개 터스티가 번스 몸 위에 누운 채 주인의 체온을 보전하고

있었다. 호프먼은 곧 구급차를 부른 뒤 응급처치를 실시했는데 자신이 번스에게 다가가자 부치는 잠시 으르렁거리며 경계하다 곧 옆으로 물러섰으며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마치 보호자처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번스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었으며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호프먼은 번스의 호흡을 되살린 뒤 그가 착용하고 있던 당뇨환자 팔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스티와 부치는 번스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켜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 2006년 1월 20일

### **자발적 실업자·등교 거부 학생, '애니멀 테라피'**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들과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치료하기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이른바 '애니멀 테라피'가 일본에서 등장했다.

1월 19일 산케이(産經)는 오사카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애완견 등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는 '애니멀 테라피' 수업을 도입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대인 관계에 문제가 있어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최근 급증하면서 취업 지원 및 니트족(NEET족 : 적당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놀고 먹는 청년 백수) 방지책의 일환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고.

이 수업은 올 10월부터 매주 1회 실시되며 교사들이 실제로 개를 교실에 데리고 들어가 학생들에게 친화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시범적으로 수업을 실시해본 결과 처음에는 경계하며 멀리하던 학생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애완견과 어울리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평소 말이 없고 소극적이던 학생들이 이 수업을 받고 반 친구들과도 친해지는 사례가 많았으며 효과를 강조.

한국경제 / 2006년 1월 19일

### **개 코 덕분에... 폐암진단 적중률 99%**

애완견이 주인의 암을 미리 경고해주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매런카운티의 암전문병원인 파인 스트리트 파운데이션 연구진이 개를 이용해 암냄새 탐지 실험을 한 결과, 개들이 특정암 냄새 탐지에 99%의 정확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뉴욕타임스가 1월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이클 맥컬러크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의 실험에 참가한 개는 폭 탄냄새탐지 훈련 중이었던 래브라도 종 3마리와 포르투갈 토종개 2마리. 연구진은 폐암 환자 55명, 유방암 환자 31명, 건강한 사람 83명의 호흡을 채취한 후 개들에게 냄새를 맡게 했다.

건강한 조직과 달리 종양에서는 소량의 알칸(메탄계 탄화수소)과 벤젠과생물질이 나온다는 연구결과를 응용한 것. 개들은 암 냄새를 맡으면 그 자리에 앉도록 훈련받았다. 실험결과 폐암 환자의 경우 99%의

정확성을 나타냈고, 유방암 환자는 84%를 찾아냈다. 건강한 사람의 호흡샘플을 맡은 개들이 암환자로 착각해 자리에 앉은 것은 딱 4번뿐이었다.

연구결과를 암전문지에 발표한 매켈러크 박사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암냄새와 다른 냄새가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방사선 치료받은 암환자는 제외하고 흡연자들을 고르게 분포시키는 등 샘플선정과 채취에 만전을 기했다”며 “우리도 믿기 어려운 놀라운 결과”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개의 후각능력상 가능한 결과”라면서도 과학적 검증을 위해선 보다 정확한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문화일보 / 2006년 1월 18일

### “AI퇴치 국제기금 조성하자”…보건전문가들 중국서 회의, EU·美 등에 15억불 요청

세계 각국의 보건전문가들이 부자 나라들에게 최고 15억달러 규모의 조류인플루엔자(AI)퇴치기금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유럽의 관문인 터키에서 최근 AI 감염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AI가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월 17일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이틀동안 열린 AI 퇴치기금 마련 국제회의에서 유럽연합(EU), 세계은행(IBRD), 중국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들이 AI의 인간 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12억~15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89개국과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20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국제회의는 AI 퇴치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이다.

유엔(UN)의 한 관계자는 “AI에 대해서는 단기처방에만 의존해서는 안되고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거액의 기금 마련을 촉구했다.

예를들어 빈국 가운데 하나이고 AI발생 국가들에게 둘러 싸여 있는 라오스의 경우 AI에 대처할 만한 사회적 기반이 매우 허약한 실정이다. 신문에 따르면 라오스에는 수의사가 69명밖에 되지 않으며 실력도 미흡한데 그마저도 이직을 하고 있다. 수의사 양성기관도 전무한 형편이다.

이번에 기금이 마련되면 이런 국가들을 지원, 수의사 양성 및 훈련 기구를 설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AI 치료제 타미플루를 생산중인 스위스의 제약회사 로슈는 WHO에 타미플루 200만 코스(1코스는 10알)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WHO 관계자는 타미플루를 확보할 수 없는 빈국들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약들을 즉각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계은행도 지난 주에 5억 달러를 출연키로 했고, EU도 1억2천1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2003년 부터 지난 10일 현재까지 AI에 감염돼 숨진 사람은 전세계에서 78명으로 집계됐다. 6개국 150명은 감염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도 이번 회의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러시아는 올해 안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8(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AI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쿠키뉴스 / 2006년 1월 18일

## ④ 加 사슴 죽인 청년 징역 2개월, 보호관찰 102년

캐나다 뉴펀들랜드주 간더지방법원은 사슴을 살해한 청년에게 징역 2개월, 보호관찰 102년, 5년간 사냥금지의 형을 선고했다.

1월 9일 캐나다통신에 따르면 토니 노리스(25)라는 청년은 지난해 3월 뉴펀들랜드주 인디언베이에서 스노모빌 동호인 10명과 숲속 길을 달리다 큰 사슴을 만나자 사슴의 뒷다리를 분지른 뒤 도끼로 살해했다가 뒤늦게 야생동물 보호담당자에게 적발됐다.

간더지방법원 글로리아 하딩판사는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행동”이라면서 이같이 선고했는데 이에 대해 야생동물 보호담당자는 “그 날 저녁 술을 마시고 스릴을 즐기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06년 1월 9일

## 국내 소식



### ④ 이국서 광견병 퇴치 '맹활약' 한국인

KOICA단원 김세민수의사 스리랑카 첫 표창

한국인 수의사가 스리랑카 정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인으로서 처음 표창을 받고 수의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수의사 김세민(28)씨는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원으로 2003년 12월 스리랑카에 파견된 뒤 광견병과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사업에 공을 세워 지난해 12월 8일 라트나여커 스리랑카 농축산부 장관의 감사표창을 받았다.

스리랑카 농축산부 장관이 외국인에게 표창을 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김씨는 전했다.

지난해 11월 라트나여커 장관은 김씨를 직속 수의보좌관으로 임명했고 자신의 집 빈 방을 내주는 등 깊은 신뢰를 보였다.

김씨는 전북대 수의학과 및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강원대에서 수의학 박사과정을 밟던 중 KOICA 군 대체복무 요원으로 지원했다.

그는 “국내에서 수의장교로 복무할 수 있었지만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개발도상국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주변에서 많이 말렸지만 젊은 나이고 미혼이기에 과감히 도전했다”고 말했다.

당시 스리랑카에 도착한 김씨는 캔디시 소재 농축산부 산하 축산보건청에서 근무하며 아카라세커라 축산보건청장과 팀을 이뤄 정부 동물병원 진료활동, 농업전문학교 강의, 가축 백신접종, 공항내 검역업무, 수의·공중보건 TV프로그램 제작 등 ‘만능 수의사’로 역량을 발휘했다.

김씨는 특히 스리랑카에서 매년 광견병으로 150여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하고 광견병 퇴치



사업에 적극 뛰어 들었다.

그는 2004년 2월부터 KOICA와 스리랑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현지인 수의사, 간호사 6명과 팀을 만든 뒤 매월 5차례 정도 지방 소도시를 순회하며 유기견의 중성화수술과 광견병 예방접종에 나섰다.

김씨는 “스리랑카 인구가 2천만명인데 개는 5배가 넘는다. 불교 국가라 개를 죽이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먹는 등 습성때문에 병원마다 5~10명이 광견병으로 치료받고 있다”며 “스리랑카 정부도 제대로 손대지 못한 일을 했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씨와 팀원들은 150~250km 떨어진 소도시까지 비포장 도로를 달려가 전기도 없는 학교에서 책상을 수술대 삼아 하루 50여마리의 개를 중성화 수술하고 주민들에게 회충약을 나눠주는 등 공중위생활동에 전념했다. 이들은 최근까지 개 5천마리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놓고 2천500마리의 중성화 수술을 마무리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한국에 20일 가량 머무는 동안 AI 진단기술을 배운 뒤 스리랑카에 기술을 전수했으며, 국내 한 AI 키트 제조업체가 3만 2천달러 상당의 진단키트 3천개를 스리랑카에 기증하도록 주선했다.

그의 활동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은 스리랑카 수의과대학에서 해마다 배출되는 졸업생 60명이 대부분 턱없이 낮은 월 수입(15만원 정도)때문에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과 달리 외국인임에도 종횡무진 애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2월 13일 전역을 앞둔 김씨가 1월 10일 귀국하자 라트나여거 장관은 KOICA 총재와 주 스리랑카 한국 대사에게 즉시 서한을 보내 “스리랑카 정부는 닥터 김이 필요하다. 제발 그를 KOICA의 수의학 전문가로 재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1월 13일 “스리랑카에 있는 동안 수의사로서 진료만 한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행정에 관여하면서 경험을 쌓았다”며 “궁극적으로는 WHO(세계보건기구)나 OIE(국제수역 사무국)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 2006년 1월 13일

### 건강진단 ‘칩’ 기술 현실로

‘랩온어칩’ 특히 최근 급증, 2008년 시장규모 7억달러

병원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건강진단을 손톱만 한 칩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랩온어칩(Lab on a chip)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4년에 발간된 ‘Frost와 Sullivan’ 보고서 조사 결과 랩온어칩의 세계시장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3.1%로 전망되고 2008년에는 7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랩온어칩 관련 특허도 2000년 처음으로 1건이 선보인 후, 2002-2003년 30건, 2004-2005년 65건이 출원되는 등 최근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이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로 출원되는 랩온어칩은 실리콘,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사용해 미세 채널을 만들고 이를 통해 나노리터 이하의 극미량 시료를 투입해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반응을 검출하는 구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핵심기술로는 미세유체 제어구조 기술, 통합시스템 기술 및 제조 기술들이 있으며 미세유체 제어구조 기술이 전체 출원의 47%를 차지하고 통합시스템 기술(28%), 미세구조물 제조방법(19%) 등 순으로 많았다.

특히 통합시스템 기술에는 핵산 분석기, 배아 및 난모 세포 분석기, 활동정자 개수장치, 세포 개수장치 등의 생명공학 관련기술과 각종 중금속 화합물 검출 시스템들이 출원되고 있다.

초기의 랩온어칩 기술은 단순히 실험재료를 분리하거나 합성하는 정도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암, 당뇨병, 세포 수 측정과 같은 의학이 포함된 생명공학분야의 검사기술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실제로 2003년에는 포항공과대학에서 적혈구와 백혈구 속도와 변형성을 측정하여 당뇨병을 진단하는 칩을, 2004년에는 삼성SDI에서 DNA 또는 단백질 등의 바이오 분자를 검출하는 칩을 각각 출원한 바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랩온어칩 기술을 통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안에 앉아서 한 방울의 피로 종합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 / 2006년 1월 25일

### 거짓 의학광고 이동3사에 주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색채와 음악으로 환절기 감기, 편두통 등 만성질환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등 거짓·과대광고를 모바일 콘텐츠로 제공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1월 11일 밝혔다. 식약청은 3사가 1월 15일까지 ‘변비 클리닉’, ‘눈피로 회복기’, ‘숙취해소기’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변비 클리닉’이라는 서비스는 “변비 증상 완화시켜주는 음악제공. 임상 결과 배변시 불편감에서 36%, 배변시 통증에서 28%의 감소와 약 30% 정도의 배변 회수 증가 등 유효한 효과”라고 광고했다.

한겨레 / 2006년 1월 11일

### 구미시,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받는다

야생조수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당한 경북 구미 지역 농민들은 올 3월부터 최고 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미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변우정 의원 등 소속 의원 6명이 발의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월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3월 공포와 동시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농민이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작물 피해를 당할 경우 경작지를 기준으로 피해면적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 보상금은 연간 500만 원이다. 전체 피해면적이 50평 미만, 전체 피해 보상액이 10만원 미만,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등은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동아일보 / 2006년 1월 25일

### 지리산 반달가슴곰 '막내'가 새끼 낳았네!

반달가슴곰 '막내'가 새끼 두마리를 낳았다. 아버지는 '장군'인 것으로 추정된다. 막내와 장군 등은 본격적인 지리산 야생곰 복원사업에 앞서 2001년 9월 시험방사됐다가 회수돼 지리산 아래에 있는 종(種)복원센터의 생태학습장에서 살아 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센터 정동혁 수의사는 1월 19일 “아침에 생태학습장을 둘러보다가 새끼 소리가 들려 확인해 보니 막내가 웅크린 채 새끼를 품에 품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야생 상태의 반달가슴곰은 동면에 들어갔을 때 크기 20cm, 무게 200~400g의 새끼를 낳은 뒤 동면 상태에서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5분 정도만 어미 곰이 품지 않으면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복원센터는 최대한 접근하지 않고 조심하고 있다. 따라서 성별(性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종복원센터 한상훈 박사는 “작년 여름 막내가 장군과 반돌이 모두와 교미를 시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장군과 같이 다녔다”며 “교미 성공을 위해 반돌이는 격리시켜 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장군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 2006년 1월 20일

### 애완견들 수난... 이노제 투약 다이어트, 짚음방지 전기충격기까지


애견 학대가 심각하다. 짚음 방지를 위해 전기충격을 가하고 다이어트를 위해 이노제를 강제 투입하는 등 갖가지 방식으로 애견을 학대하고 있다.

서울 목동에 사는 최모(31)씨는 애견 때문에 시끄럽다며 이웃의 불평이 끊이지 않자 짚음 방지용 전기충격기를 구입했다. 이 제품은 애견이 짚을 경우 성대의 진동을 감지, 일정한 전기충격이 발생해 짚는 것을 방지한다. 최씨는 “성대수술보다 인간적이라는 생각으로 구입했다”며 “그러나 처음부터 괴로워하던 애견이 자극이 계속되자 결국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고 말했다.

얼굴 부분에 레몬향이 자동적으로 뿌려지는 짚음 방지용 분사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애견도 있다. 서울 오륜동 이모(58·여)씨는 “코에 레몬 향기가 묻어 따끔거리는지 철문에 코를 비벼 피가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짚음 방지용 입마개는 애견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서울 충무로의 한 애견센터 주인은 “지난해 11월 입마개를 씌운 개가 먹은 것을 토하면서 기도가 막혀 죽은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이어트를 강요당하는 애견도 있다. 서울 강남의 김모(40) 동물병원장은 지난달 임신 후 몸매관리를 위해 사료를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린 애견을 치료한 적이 있으며 체중감소를 위해 이노제를 강제로 먹이는 애견 주인도 더러 있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애견도 인간처럼 출산 후 배 주위가 늘어나거나 가슴 부분이 붓는 등 몸매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며 “인위적으로 몸매 관리를 위해 인간의 관점에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주인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동물보호협회 금선란 회장은 “애완견이 입을 벌리지 못하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전기충격 목걸이 등으로 목을 졸라매는 것도 분명한 동물 학대행위”라며 “학대가 심하면 스트레스로 성격이 폭력적,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일보 / 2006년 1월 9일